

한미일 리더들과 '경제·안보' 현안 논의

최종현학술원, 6~8일 美서 포럼 개최
3국 관료·학자·재계 인사들 한 자리에
미중 패권 다툼·공급망 위기 해법 모색
최 회장, 의제 선정 과정 등 직접 챙겨



최태원 SK그룹 회장(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학자, 재계 인사 등 정치, 경제, 외교 전문가들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태평양,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제공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미국·일본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학자, 재계 인사들 한 자리에 모은 집단지성 플랫폼을 만든다.

최태원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학술원은 '제1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2021, 이하 TPD)를 12월 6~8일 미국 워싱턴D.C. 교외 쉐러먼데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TPD는 미·중 패권경쟁, 북핵,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태평양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플랫폼이다.

TPD는 범태평양 지역 민간외교와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최 회장이 지난 수년간 구상해 만든 지정학 위기 해법과 경제외교 대안제시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다.

TPD는 ▲미·중 전략 경쟁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협력 ▲북한핵 문제와 한미동맹 ▲첨단과학기술 혁신이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현학술원은 "최근 경제현안으로 떠오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물론 미·중 패권경쟁과 북핵 등 안보 이슈, 첨단기술을 둘러싼 무한경쟁 등 범태평양 국가나 기업들이 마주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 의제 선정에서 참석 수락까지 공들여

미국 측 참석 인사로는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장관, 웬디 커틀러 전 한미 FTA 수석대표, 맨 포노만 전 에너지부장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비롯해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존 미아시아미 시카고대 교수, 존 아이젠베르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스탠리 휘팅엄 뉴욕주립대 석좌교수(2019년 노벨화학상), 수재 킵 투 UC버클리 공대학장, 에드윈 폴너 해리티지 재단 회장, 새프라 캐츠 오라클 CEO 등 학계와 싱크탱크, 재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나가사키 아키히사 전 방위상, 후지사키

이치로 나가소네 평화 연구소 이사장, 마츠카와 루이 자민당 참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인 후지와라 키이치 도쿄대 교수, 타카하라 아키오 도쿄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 전·현직 고위관료를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집중해 온 유럽 중심의 범대서양 대화체제에서 탈피해 동북아 지역 지도자들과의 대화로 중심축을 전환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 민간외교가 한반도와 북한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적 위상을 확대하는 계기를 조성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최종현학술원의 설명이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이사장을 비롯해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재호 서울대 교수,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교수,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김성현 고려대 교수,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손지에 이화여자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과 강기석 서울대 교수가 참석한다.

한·미·일 3국의 거물급 인사들이 2박3일 동안 한 자리에 모여 포럼을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태원 회장은 처음 열리는 TP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초부터 의제 선정 과정을 일일이 챙기고, 일부 인사들에게는 여러 차례 연락해서 참석 수락을 확보하는 등 포럼 성사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PD에서는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외부에 알리지 않는 '채텀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도 진행된다.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정부 "산업용 요소,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 가능"

산업용 요소도 정제 과정을 거치면 차량용 요소수 제조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28일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기준에 맞게 잘 제어하면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11월 16일부터 9일간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혼합해 만든 2종 시료를 소형·대형 경유 화물차에 주입한 결과, 5개 배출가스 규제물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독성 물질인 알데히드가 1톤 화물차(보고)에서는 증가했으나 기준 이내였고, 알데히드 저감 산화촉매가 장착된 3.5톤 화물차(마티)에서는 두 개의 시료 모두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중국산 산업용 요소로 만든 차량용 요소수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항목이 차량용 요소수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국내 제조업체의 공정처리를 통해 차량용 기준에 맞는 요소수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수입되는 산업용 요소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 '문화재 사회공헌 우수기업' 선정

효성이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1 문화재 사회공헌 컨퍼런스'에서 문화재 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효성은 2018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위촉된 '문화재 지킴이'로 아름다운 우리 고공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창덕궁 대조전과 회정당 내 조명 및 인테리어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공로로 문화재 사회공헌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효성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기과 함께 방치된 궁궐 근대 조영 기구 복원 및 공간 재현에 힘써왔다. 평소 창덕궁 회정당 내부는 관람이 제한돼 있었지만, 2018년 10월 효성과 문화재청의 복원작업 진행 후 2019년에 일반 시민에게 첫 공개돼 관람객의 호평을 받았다.

효성은 조현준 회장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 아래 문화재 지킴이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문화유산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단체인 재단법인 아름다운기과를 설립하고, 문화재 보호단체인 재단법인 아름다운기과를 설립하고, 문화재 관련 메시지나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SK(주)-SK머티리얼즈 합병법인 출범...첨단소재 1위 도약

배터리 등 핵심기술 선점 통해 경쟁우위 확보
첨단소재 국산화 앞장...신주 27일 상장 예정

SK(주)와 SK머티리얼즈의 합병 법인인 SK(주)가 1일 공식 출범한다. SK(주)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과 SK머티리얼즈 첨단소재 분야 사업 경쟁력을 결합해 글로벌 첨단소재 1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합병법인의 신주는 27일 상장될 예정이다.

SK(주)는 첨단소재 기업들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소재 ▲전력·화학물반도체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등 4가지 영역에서 발 빠른 투자를 통해 핵심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SK(주)는 지난 9월 투자자 간담회를 통해 2025년까지 총 5조 10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첨단소재 분야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먼저 SK(주)는 글로벌 1위 동박 제조사 왓슨(Watson) 투자 등을 통해 이미 확보한 배터리 핵심소재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배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차세대 음극재, 양극재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SK(주)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과 SK머티리얼즈 첨단소재 분야 사업 경쟁력을 결합해 글로벌 첨단소재 1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투자함으로써 전자 배터리 소재 분야에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음극재 분야에서는 기존 SK머티리얼즈가 미국의 그룹14(Group 14 Technologies)와 함께 2023년 양산을 목표로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합작공장 설립을 시작했다. 차세대 양극재 소재 시장에서도 SK(주)는 양극재 선도 기술 기업인 중국의 베이징 이스트프링스와 합작법인 설립 논의를 진행 중이다.

SK(주)는 전자, 자율주행차, 5G 등에 필수적인 차세대 반도체인 전력·화학물반도체 분야에도 적극 투자해 차세대 첨단소재 기술의 국산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K(주)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첨단소재 영역은 고도의 경영전략과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 분야"라며 "SK(주)는 SK머티리얼즈와의 합병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핵심 첨단 소재 기업으로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대우조선해양,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박차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이성근)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실감형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한 선박 스프레이 도장 훈련이 가능한 'VR 도장 교육센터' (사진)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VR 도장 교육센터를 활용하면 실제 선박 블록에 오르지 않고도 블록 형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공간에서 선박 스프레이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실제 선박 내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공간에서 시각, 청각 및 촉각적인 효과까지 몰입감 있는 가상훈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훈련용 자재의 제약 없이 상시 체험이 가능하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도장 VR 교육 프로그램을 직무교육에 적용함에 따라 선박 도장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막 품질 문제 및 자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생산 원가상승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12월부터 도장 직무 종사자 약 80여 명이 훈련에 참여할 예정으로, 향후 교육 인원 및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오늘의 날씨			1일(수)		
서울 0/0	인천 0/20	춘천 0/0	강릉 0/0	대전 60/20	전주 60/30
광주 30/30	대구 20/10	부산 0/0	창원 20/20	제주 6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	6	3	2	8	최저
8	11	최고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1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당)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1일(수) 음력: 10월 2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비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 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이룬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크기의 정성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때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 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신중하고 분기를 거듭해야 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იდ,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에 불참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라.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